

‘돌봄공백 해소’ 취지 좋지만 인력난 등 해법 필요

내일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행 ‘지원대상 선별’ 관리자 역할 커 긴급 돌봄인력 상시근로자 전환 왕진서비스 ‘우리동네의원’ 기대

신청절차 간소화·기존 돌봄 공백 해소 측면에서 ‘광주다움 통합돌봄’에 거는 기대가 크지만 시행 초기 예상되는 문제점 최소화가 성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예상되는 문제는 행정 및 돌봄 인력난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체계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다 보니 도움이 절실한 이용자를 가려내는 것이 첫번째 과제다. 이 업무는 행정복지센터의 사례관리 담당자가 맡는다. 사례관리담당자는 2인1조로 구성돼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신청한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 현장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정이 가정방문”이라며 “가정방문을 하면 이용자의 경제적 상황뿐 아니라 정신적 상태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가 체계화될수록 사례관리담당자의 역할이 많아지고, 인력 확보도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예상해 사례관리담당 인력을 대거 채용했지만,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행으로 인한 행정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돌봄인력 부족도 예상된다. 특히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돌봄공백 해소’를 골자로 하는 만큼 공백 해소에 투입되는 긴급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내달 1일부터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최근 광주 광산구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네의원 입구에 방문진료 신청 안내문이 내걸려 있다. 나연호 기자

돌봄 인력 수급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긴급돌봄 인력은 광주시 사회복지서비스원에서 제공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광주시는 시간제 근로자였던 사회복지서비스원 대기인력의 50%를 상시근로자로 전환했다. 시간제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로 전환될 경우 임금 체계가 달라진다. 긴급돌봄 운영이 원활하지 않으면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

박종민 늘행복마을건강센터장은 “한번도 안 해본 사업이다 보니 뭐가 부족하고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가 관건이다”면서 “시행 3개월쯤인 7~8월 정도에 문제점을

꼼꼼히 분석하고 개선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에서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왕진 서비스’인 ‘우리동네의원’의 인력 수급도 절실하다.

우리동네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의 가정을 의사가 직접 방문해 진료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들은 신체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직접 병원을 방문해야 했고, 이로 인한 불편함 때문에 노인과 장애인은 결국 요양병원이나 시설로 옮겨져 양질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이 문제를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동네의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동네의원 운영 시스템을 들여다보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동네 의원은 광주의료사협이 설립, 1000여명의 시민이 직접 출자해 만들었다. 의사가 상주해 방문진료·재활, 장애인 주치의, 장거리 병원동행서비스 등 건강소외계층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지만 상주하는 의사는 2명에 불과하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7대 서비스 중 하나

로 광주시의 보조를 받는다고 해도 공익 실현을 위해선 2명의 상주 의사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미 140여개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지만, 공정함과 편리함을 목표로 개선을 거듭하다보니 아 이러나하게도 틈새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기존의 돌봄체계를 대대적으로 손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틈새를 메우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취지”라고 말했다.

박상지 기자 sangji.park@jnilbo.com

광주신세계백화점 확장안 ‘조건부 동의’

시 “육교 철거·지하차도 기부채납”

광주신세계 백화점 확장안이 ‘조건부 동의’로 첫 행정절차를 넘었다.

광주시는 30일 오후 청사 3층 소회의실에서 2023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다. 시는 광주신세계가 제시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여부를 심의한 끝에 조건부 동의로 결론지었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지난해 8월 광주신세계를 대폭 확장, 프리미엄 백화점인 ‘아트 앤 컬처 파크’를 건립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광주시가 제시한 조건은 8가지로 △기준 백화점의 구체적 활용 방안 제시 △전기차 충전 시설·주차장 추가 확보 △남서측 진출입 가능토목 조정(일방통행은 양방향 통행 가능토목 계획·양측 보도 설치

해 공공보행 환경 개선) △지하차도 설치 후 기부채납 △소로 선형 변경에 따른 보행 환경 개선(지상·지하 포함 입체적 공공보행통로 설치) △기존 보행육교 철거 △응급·화재 등 비상차량 동선 고려 도로 확장 △금호월드 포함 주변 민원 적극 해소 등이다.

광주신세계가 이 같은 조건을 이행하면 다음 절차로 지구단위계획수립, 광주시 관계 부서 의견 검토, 주민 의견 수렴, 공동위원회(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 고시, 건축 인허가(교통영향평가·건축경

관위원회 심의), 대규모 점포 허가·등록 등의 과정이 남는다.

마지막 단계인 대규모 점포 등록까지는 최소 1년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지난 1월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광주신세계 확장 계획을 검토, 5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재자문 결론을 내렸다.

광주신세계가 제안한 내용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당장 입안하지 않고 보완책을 마련한 뒤 다시 자문하도록 했다.

광주신세계는 최종 계획안을 보완, 최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제출했다.

금호월드 상가총연합회와 복합쇼핑몰 광주상인대책위는 이날 “광주시가 밝힌 광주전면 우회도로의 일부 구간 확장 계획은 복합쇼핑몰 도심 입점 구실을 만들어주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시는 광주신세계 지구단위 계획을 반려하고, 상권영향평가를 하라”고 촉구했다.

박상지 기자 sangji.park@jnilbo.com

볼꽃과 함께 떠나는
2023 **화순 고인돌축제** 2023.4.21.~4.30.
화순고인돌유적지

화순군

개막식 & 축하공연
line up

4. 21. 금 18:00~
화순공설운동장